

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계 열	인문계열(A형)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 명	

※ 문제지 확인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흑색) 볼펜**으로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2. 수험번호와 생년월일을 숫자로 쓰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 표기하여야 합니다.
3.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며, 인적사항이나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을 유의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A형)

(가) 테오야, 네 생일에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 본다. 이날에 맞추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유화를 보내고 싶었지만, 잘 그리긴 했어도 마무리 짓지는 못했어.

기억을 되살려 그린 이 그림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긴 하겠지만, 겨우내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했거든.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마무리하지 못할까 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겠어? ……

요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파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 보려 애쓴 거야. 그렇게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

농촌 생활을 관례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잘못된 거야.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와 좋지. 불결한 게 아니거든.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어. 밭에서는 밀이 익어 가거나 감자나 퇴비, 거름 냄새가 나는데, 이건 도시민들에게도 유익할뿐더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 ……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또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겠지. 밀레, 드 그루 등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라는 혹평에 흔들리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잖니.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

이 그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이사하는 것을 거의 잊었어.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이야. 걱정이 적지 않지만, 이 분야의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들이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거야.

(나) 창의력이 솟아나도록 이끄는 시작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호기심이라고 생각한다. 호기심은 창의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세상 모든 어린아이의 눈은 반짝거린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이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주 당연한 것을 묻기도 하는데 나는 그러한 질문들이 무척 재미있다. 이런 질문을 통해 당연해 보이는 전제 조건을 한 번 씩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는 아들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아빠, 저녁 시간이 되면 왜 어두워져?”

“해가 지기 때문이야.”

“그럼 해는 왜 저?”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큰 공을 가져오라고 한 뒤, 그 공 위에 스마트폰을 테이프로 붙이고, 책상의 전등불을 켜 후 그 앞에서 공을 돌려 가며 공 위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다음, 아이에게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전등의 움직임이 찍힌 그 영상을 보여 주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점, 지구가 자전하면 해가 뜨고 지는 까닭 등을 설명해 주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아이가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준 것이다.

호기심은 자꾸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생겨나기 마련이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호기심을 잃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자.

(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갖추므로써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은 반길 일인가,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할 일인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적 석학들이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엔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 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는 …… 생각하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즉,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 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분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과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 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번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1. 제시문 (가)는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자신의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한 편지글이다. 제시문 (가)에 나타난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관을 요약하시오.(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다)의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의 주장을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하여 반박하시오.(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Tel 02-3408-3114 www.sejong.ac.kr

입학안내 Tel 02-3408-3456, 4455 Fax 02-3408-3556 ipsi.sejong.ac.kr